

일본 도시바, 인도 백색가전시장 진출

도시바는 2월 1일 현지법인인 도시바인도를 통해 오는 6월까지 도시지역에서 세탁기 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업체로 인도 백색가전시장 진출은 히타치·마쓰시타·샤프·산요에 이어 5번째다.

도시바는 진출 첫 해에는 태국에서 생산한 냉장고와 세탁기를 문바이·첸나이 2개 도시지역에 투입한 후 델리 등 다른 주요 도시로 판매지역을 확대해, 10억엔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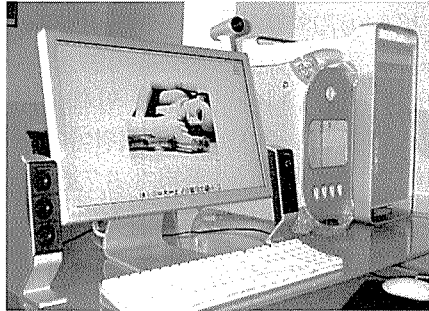
도시바는 특히 인도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연수입 50만루비 이상의 부유층을 겨냥, 판매가격이 1대당 3만엔 가량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가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LG전자 등 한국업체들이 저소득층을 주요 타깃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바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비교적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도시바는 현재 인도에서 수력발전 등 주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PC·OA기기·반도체 등을 판매하고 있다. 또 일본과 싱가포르 거점이 주체가 되어 인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백색가전 판매를 중심으로 인도사업을 도시바인도에 집약시킨다는 방침이다.



애플컴퓨터, 운영체제 결함을 수정한 패치 발표



애플컴퓨터가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 '맥 OS X'의 보안 결함을 수정한 패치(시큐리티 업데이트 2006-001)를 발표했다.

이 패치는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Safari)'와 이메일 소프트웨어(SW) '애플 메일(Apple Mail)'에서 발견된 20건의 보안 결함을 수정한 것이다.

이 패치를 설치하면 애플의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아이챗(iChat)'도 변경돼 일부 맥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Leap.A' 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애플은 또 악의적인 웹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는 보안 취약성 등 보안 버그 4개, PHP와 관련한 취약성 4개도 수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패치는 맥 OS X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Software Update)' 기능을 이용하거나 애플컴퓨터 웹 사이트의 '애플 다운로드(Apple Downloads)'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맥 OS X는 윈도 OS와 달리 보안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맥 OS X를 겨냥한 트로이목마 바이러스와 웜 등이 등장하고 특정 웹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악성 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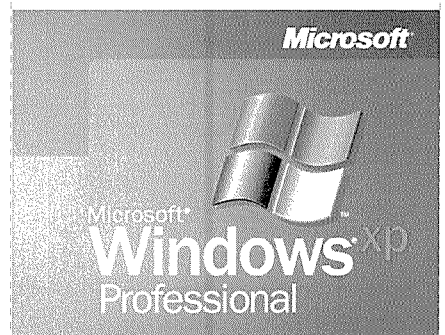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엔진 수개월내 구글 추월

마이크로소프트(MS)가 2월 1일 로이터 주최로 열린 정보통신관련 회의에서 "MS는 앞으로 6개월 내에 미국·영국시장에서 구글보다 우수한 존재가 될 것"이라며, "MS 검색엔진이 질적인 면과 소비자용 솔루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적합성 면에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다른 표준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수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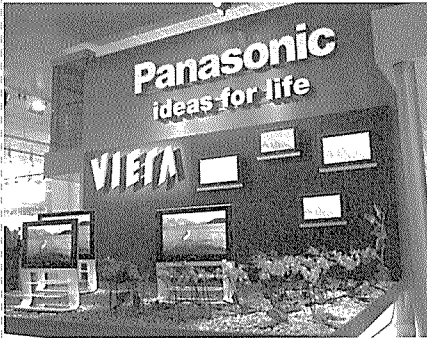
MS는 최근의 독점과 관련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윈도의 차기버전인 비스타에는 검색엔진을 탑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윈도비스타는 윈도XP의 후속 제품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대신 이를 윈도 메신저와 핫메일과 통합시킬 예정이다.

MS는 그동안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패키지로 묶는 전략을 써왔다. MS는 윈도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와 리얼네트웍스의 오디오 비주얼소프트웨어 등을 말살시키려 했다고 미국 법원이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MS의 목표는 URL검색을 넘어 인터넷이 용자들이 찾고 있는 특정 정보에 조준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 다만 초기 제품에서는 이같은 기능이 다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파나소닉, 베트남 탕롱산업공단에 7,640만달러 투자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로 아시아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마쓰시타전기산업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섰다. 베트남 계획투자부(MPI)가 발행하는 영문 경제 주간지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VIR)는 최신호에서 파나소닉 베트남이 지난 2월 20일 수도 하노이 외곽의 탕롱 산업공단에 7,640만달러를 투자해 데이터 자동처리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현지진출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파나소닉 베트남은 아시아권에서의 제품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VIR은 전했다.

파나소닉 베트남은 지난 1996년부터 남부 호찌민시에 오디오와 비디오 제품을 생산하는 파나소닉 AVC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등록자본금이 800만달러 규모인 파나소닉 AVC네트워크의 베트남측과의 합자로 운영되며, 파나소닉측의 지분은 60%다. 이어 2003년에는 탕롱산업공단에 2,300만달러를 투자해 파나소닉 홈어플라이언스 베트남(PHAV)을 설립하고 가전제품을 생산해오고 있다.

중국 이동통신업계, 지난 1월 사상최고 성장세

중국 이동통신업계가 지난 설날 특수에 힘입어 사상 최고의 가입자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월 21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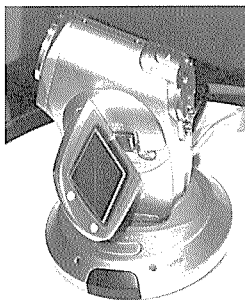
중국최대의 이동업체 차이나 모바일의 경우 지난 1월 무려 407만명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해 월별 최고기록을 갱신했다. 회사측은 차이나 모바일의 고객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억5,072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2위업체 차이나 유니콤도 지난달 사상최고인 131만명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했다. 이러한 중국 이동시장의 성장세는 설날을 앞두고 두 이동업체가 대대적 마케팅을 벌인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노무라 연구소의 한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중국이동통신업계의 이례적 성장세는 주로 계절적 요인 때문이며 앞으로 고객수가 계속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고 분석했다.

일본 산요, 디지털무비카메라 신제품 출시

산요가 국내 시장에 디지털 무비카메라(캠코더)신제품을 출시했다.



산요 세일즈앤드 마케팅코리아는 2월 2일 조선히otel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소 최경량 디지털 무비 카메라인 Xacti VPC-HD1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무게가 210g에 불과하며 일반 SD메모리 카드에 1,280×720 픽셀의 고화질 동영상과 510만 화소의 디지털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10배 광학줌과 10배 디지털줌으로 최고 100배 줌이 가능하고 2기가 메모리카드를 탑재해 HD급 동영상은 42분, 일반 화질은 2시간 이상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

카도 히데유키 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한국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현재 약 2%인 시장점유율도 4%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키아, 미국시장서 모토로라 상대로 총력전

노키아가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모토로라 타도를 선언하고 나섰다.



레드헤링에 따르면 올리 페카 칼라스 부오 차기 노키아 CEO는 최근 핀란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것은 노키아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휴대폰시장을 주도하는 모토로라를 상대로 총력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노키아는 세계 최대의 휴대폰업체지만 유독 미국시장에서는 모토로라의 위세에 눌려 한 때시장 점유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칼라스 부오 차기 CEO는 이와 관련 “지난해 4분기 노키아의 미국내 휴대폰 판매량이 전년기에 비해 69%나 늘었다”면서 미국시장 공략에 자신감을 비쳤다.